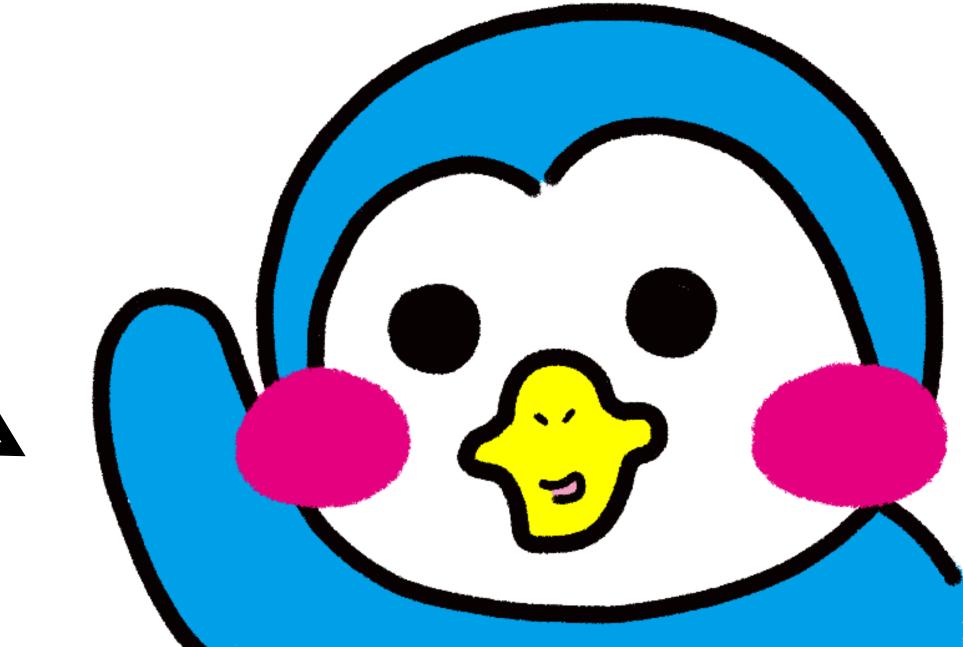
짓과 깃허브가 처음인 당신에게

Git 저장소 관리하기





깃의 세 가지 관리 영역

깃 프로젝트는 내부에 가상의 관리 영역을 만들어 파일의 상태를 구분하고 버전을 관리 한다. 관리 영역은 세 가지로, 각 영역의 이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 나는 언제나 이곳을 보며 작업을 진행한다

나의 문서 작업은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

수정 이력을 기록할 파일을 대기시키는 장소

깃이 관리하는 영역

스테이징 영역에서 대기 중이던 파일들의 수정 이력이 최종적으로 기록되는 장소

깃이 관리하는 영역

Working Direc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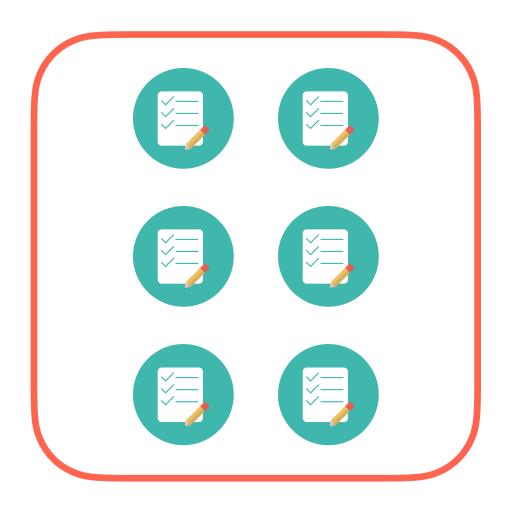
Staging Area

Repository



작업 디렉터리는 감시(?) 대상이다

깃은 깃 프로젝트의 작업 디렉터리 내 문서들의 수정 사항을 추적(tracking)한다. 깃은 문서의 상황에 따른 문서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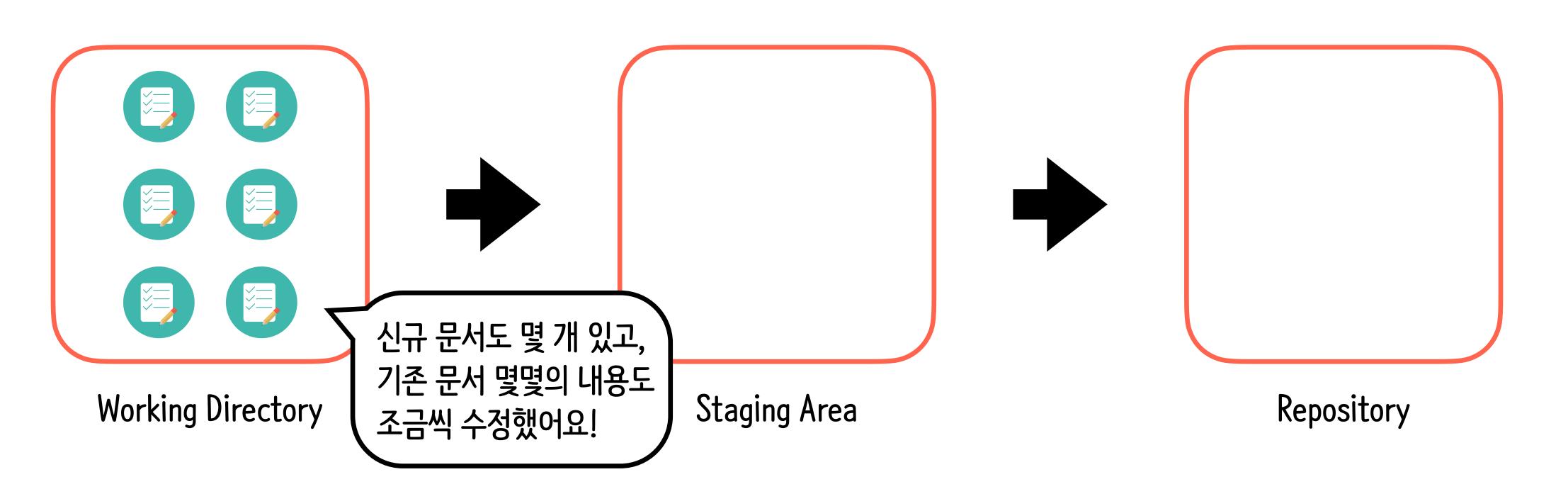


Working Directory

- untracked file: 이제 막 생성된 파일로, 추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 unmodified file: 추적 중인 파일이나, 딱히 수정 사항이 없는 상태.
- · modified file : 추적 중인 파일이며, 수정 사항이 감지된 상태.



깃 사용자는 워킹 디렉터리에서 감지된 신규 문서나 수정 문서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한 문서는 커밋(commit)이라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포지토리에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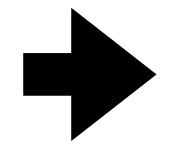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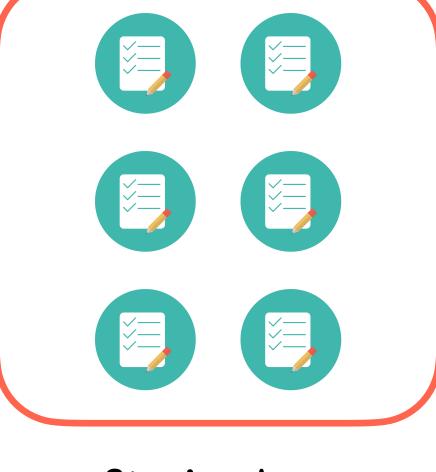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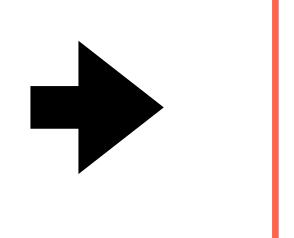
깃 사용자는 워킹 디렉터리에서 감지된 신규 문서나 수정 문서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한 문서는 커밋(commit)이라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포지토리에 기록된다.

물론 스테이지에 추가한 이후에도 워킹 디렉터리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문서의 영역과 상태는 깃 프로젝트 내부에서 관리되는 것들이다.

스테이지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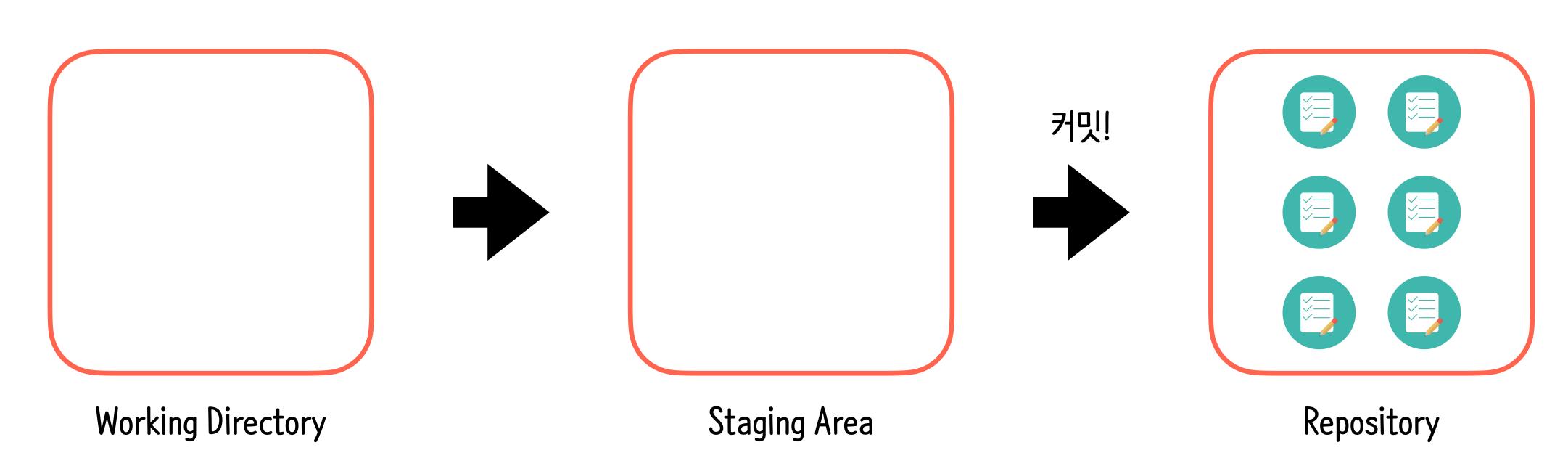
Repository

Working Directory

Staging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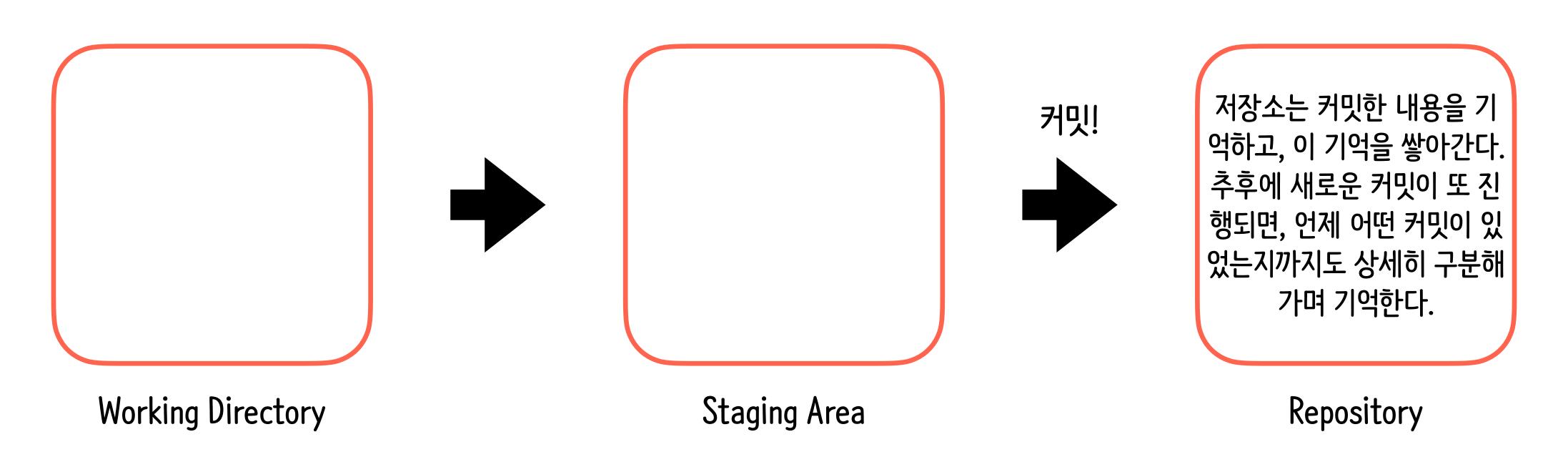


깃 사용자는 워킹 디렉터리에서 감지된 신규 문서나 수정 문서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한 문서는 커밋(commit)이라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포지토리에 기록된다.





깃 사용자는 워킹 디렉터리에서 감지된 신규 문서나 수정 문서를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한 문서는 커밋(commit)이라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리포지토리에 기록된다.





버전 관리… 별 거 아니죠?

깃을 이용한 프로젝트 버전 관리란 결국 문서의 작업 이력을 쌓아나가기 위해 git 명령 어로 내가 만든 파일의 상태와 영역을 변경하는 작업을 뜻한다.

깃 저장소 내부에 쌓여 있는 이력들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문서 내용을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이력 간의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할수 있다. 문서나 폴더에 대한 복사를 하지 않고도 말이다!



깃 프로젝트 관리하기 관련 명령어들

\$ git status

깃 프로젝트 상태를 확인하는 깃 명령어

\$ git add

워킹 디렉터리 내 문서를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하는 깃 명령어

\$ git commit

스테이징 영역 내에 대기 중인 문서를 리포지토리에 추가하는 깃 명령어

\$ git log

커밋한 수정 이력을 확인하는 깃 명령어



수고하셨습니다:)